

LCD, 하반기 시장전망 “밝다”

디스플레이뱅크, 노트북용 수요 크게 증가 ... 가격도 상승

2005년 하반기 대형 LCD 시장이 수요 확대와 채산성 개선 본격화 등으로 매우 밝게 전망됐다.

디스플레이 시장 전문 리서치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는 7월5일 대형 LCD의 주 수요처인 LCD모니터, 노트북 및 LCD TV 등 전체 영역에 걸쳐 하반기 수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노트북 프로젝트가 하반기에 집중돼 있고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부품 수급문제가 해소되면서 노트북 수요가 하반기 크게 살아날 것으로 관측했다.

LCD모니터도 델, HP 등이 2005년 하반기 LCD모니터의 채용비중을 크게 확장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명하고 있어 계절적 특수와 함께 수요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디스플레이뱅크가 타이완 시장조사 리포트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델의 LCD 모니터 생산은 2005년 상반기 930만대에서 하반기 1460만대로, HP는 470만대에서 550만대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TV용 LCD 수요가 2/4분기 390만대에서 3/4분기 520만대, 4/4분기 750만대로 늘어나는 등 전체 대형 LCD 패널 수요는 2/4분기 4160만대에서 3/4분기 4800만대, 4/4분기 5460만대 등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2005년 4월 타이완 최초로 6세대 라인 양산에 들어간 AUO가 유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화영관, 쿠파 등 다른 타이완기업들도 6세대 가동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연기한 상황이어서 출하 가능물량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업체는 패널 가격도 3월 이후 4개월간 17인치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해 152달러에서 17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수개월내에 180-185달러 수준으로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스플레이뱅크에 따르면, 현재 모니터 완제품의 재고물량은 거의 없는 수준이며 수익률도 2005년 1/4분기가 -4.5% 수준이었으나 2/4분기에 3.0% 흑자로 전환된데 이어 3/4분기 12.6%, 4/4분기 19.4% 수준으로 향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7/07>